

제주신화월드 "매달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면요리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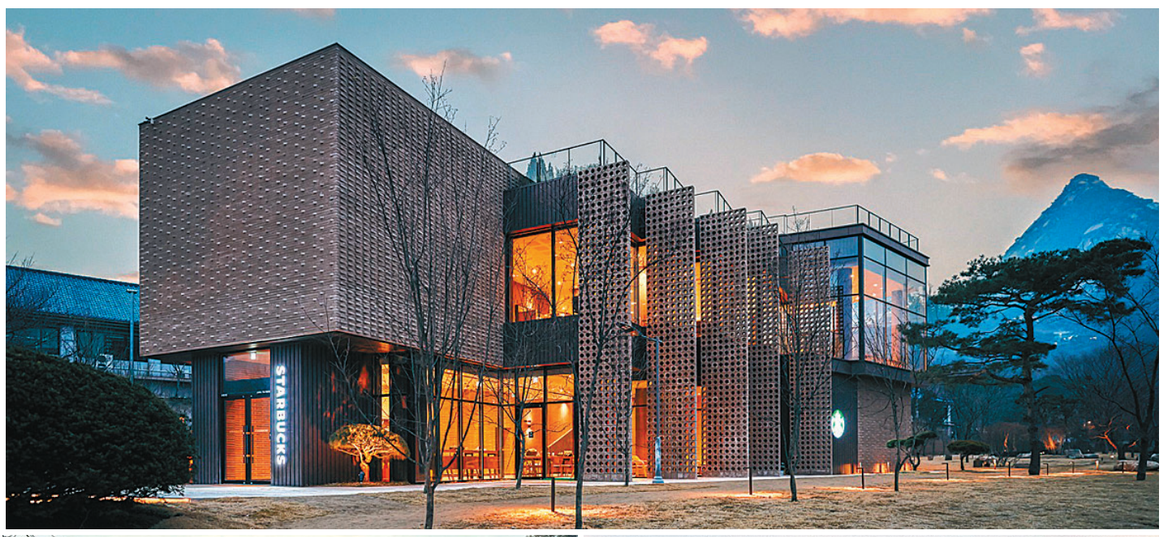
제주신화월드는 '신화테라스'에서 매월 새로운 동남아시아 면 요리를 선보이는 '월간 누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상반기는 인도네시아로 2월부터 6월까지 보고르의 우족 온국수 '소토 미 보고르', 메단의 에그누들과 새우 '미 코촉 메단', 닭고기를 사용한 마두라섬 '소토 아얌 마두라', 자바섬 소고기 볶음면 '쿠웨이티아오 고랭' 등을 소개한다. 하반기에는 태국의 면요리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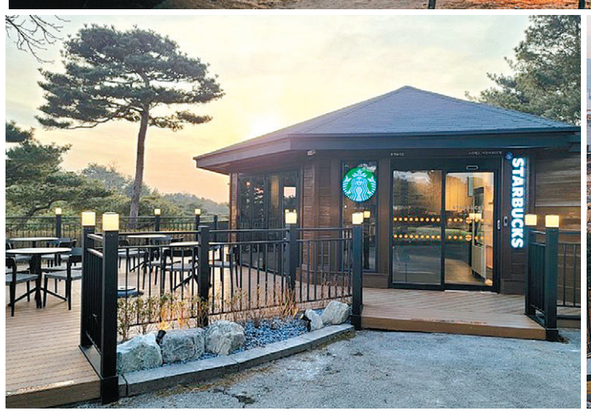
스타벅스, 오프라인 매장 차별화

"북한산 바라보며 아메리카노 한잔 어때요"

스타벅스가 오프라인 매장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 경험을 늘리고 있다. 기존 도심 속 매장에서 벗어나 새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선보인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꼭 가봐야 하는 매력적인 공간, 지역사회 및 주변 환경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 등을 추구하고 있다.

도심 속 벗어나 특별한 매장 경험
'더북한산점', 북한산 보며 산책 힐링
오픈 기념으로 '쑥' 특화 음료 선봬
'더북한강R점', 시원한 전망 인기
골프장에 접목한 '여주자유CC점'도







스타벅스가 기존 도심 속 매장에서 벗어나 새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입구 인근에 위치한 '더북한산점', 북한강과 주변 자연의 전망을 볼 수 있는 '더북한강R점', 경기 여주 자유컨트리클럽 내에 선보인 '여주자유CC점'(위부터 시계 방향). 사진제공 | 스타벅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추구

먼저 15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 입구 인근에 '더북한산점'을 오픈했다. 도심 속 현대인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자연과 교감하며 북한산의 웅장한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서울을 벗어나지 않아도 북한산을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지상 1, 2층과 옥상 등 약 991m² 규모에 전체 좌석 수는 253석이다. 옥상 테라스에서는 북한산 자락을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북한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매장 외부에는 나무와 수경공간을 통한 산책 공간을 조성해 마치 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오픈 기념으로 자연을 담은 쑥 특화 음료인 '더 그린 쑥 블렌디드'와 '더 그린 쑥 크림 라떼'를 선보였다. 윤경일 스타벅스 인테리어 팀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스타벅스 '더북한산점'이 힐링과 추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매장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경기 남양주 화도읍에 위치한 '더북한강R점'도 인기다. 북한강과 주변 자연을 바라보는 전망을 가진 특화 매장이다. 옥상을 포함해 총 4층에 걸친 300석 규모로, 북한강 풍경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했다. 매장 내부 역시 간결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자연 경관을 하나의 인테리어 요소처럼 느끼도록 북한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형 창을 마련했다.

1~3층에는 일반 메뉴 주문 공간을 비롯해 프리미엄 커피와 티바나 티를 즐길 수 있는 리저브 바를 함께 운영한다. 옥상에서는 주변 자연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강변을 배경으로 특별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했다. 이밖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 파크 공간, 차량 90여 대와 자전거 30여 대가 동시 주차 가능한 공간, 지속가능성 전략에 맞춘 전기차 충전 시설 등을 선보였다.

●스포츠·레저 즐기며 스타벅스 만나요

스포츠와 레저를 접목한 매장도 눈에 띈다. 경기 여주 가남읍에 위치한 자유컨트리클럽 내에 오픈한 '여주자유CC점'이 주인공. 국내 최초로 골프장 내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으로 골프 라운딩 중 휴식시간에 이용하던 기존 그늘집 공간을 리모델링했다.

102.54m² 규모로 내부 20개, 외부 테라스에 16개의 좌석을 마련했다. 매장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7종의 스타벅스 인기 제조 음료는 물론, 라운딩 중간에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샌드위치와 케이크 등을 판매한다.

회사 측은 "야구장 내 인천SSG랜더스필드점 1·2호점, 창원NC파크R점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스타벅스 커피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내 첫 골프장 내 스타벅스 매장인만큼 특별한 스타벅스 경험을 준비했다. 자유CC를 찾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hy, 프레시 매니저 위한 'hy대회' 성료
미래 청사진 공유…분야별 성과상 시상

hy가 최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hy대회(수도권·사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권 행사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라 불리는 프레시 매니저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1971년 시작해 올해로 52회를 맞았다. 회사 측은 "원래 매년 열리는 대규모 대면 행사였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지역별 행사로 진행하다 이번에 다시 전국 단위 행사로 부활했다"고 했다,

대회 콘셉트는 '새로운 도전과 여행'이다. 신제품과 신사업 중심의 hy 미래 청사진을 공유했다. 신상품 '스트레스케어 쉼' 론칭쇼와 함께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마련했다. 활동기간과 공적에 따라 해외연수와 상금을 제공하는 분야별 성과상도 시상했다.

한편 hy는 푸르밀과 손잡고 공식 온라인몰 프레딧을 통해 '바나나킥 우유 카톤팩'을 판매한다. 구매 시 고객 요청 장소로 프레시 매니저가 무료로 전달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hy는 가공유 라인업 확대, 푸르밀은 신규 판매 채널 확보를 추진한다.

광동 경옥고, 60주년 기념 특별 패키지 출시



광동제약은 광동 경옥고 6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패키지(사진)를 공개했다. 광동 경옥고는 광동제약의 창업품목으로 생지황, 인삼, 복령, 꿀 등 4가지 약재를 배합한 후 120시간 증숙하는 과정으로 제조한 약품이다. 새 패키지에는 60주년 기념 엠블럼과 광동제약 CI의 모티브인 거북이가 등장한다. 이와 함께 계묘년을 맞아 토끼를 디자인 요소로 추가했다. 광동 경옥고는 2016년부터 스틱포 형태로 리뉴얼했고 지난해 누적매출 900억 원을 기록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목디스크 변성 심하고 일상 생활 힘들 경우
재발률 낮은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 효과

목디스크는 증상을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 또는 전신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의 경우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 혹은 생활습관 개선 등의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디스크의 변성이 심각하고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경압박이 심한 경우, 디스크의 재발이 잦은 경우, 일상 생활이나 밤에 잠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각한 중증인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디스크 구조물을 삽입해 기존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시켜주면서 척추의 움직임을 살려내는 수술법이다. 고전적인 수술법인 골유합술에 비해 수술하지 않은 인접 마디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최소절개 방식으로 출혈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 수술시간도 1시간 내외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디스크 자체를 반영구적인 인공디스크로 교체해 수술 후 재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수술 후에도 디스크 기능이 유지되어 목과 머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특히 디스크 수술과정에서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아 회복이 빠른 것은 물론, 수술 후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 후 보조기 착용이 거의 필요 없어 일상 복귀도 빠르다.

연세고든병원 **최현민** 병원장 (척추외과)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돌발 변수'
EU, 중복 노선 지적…2단계 심사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했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7월 5일까지 2단계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 EU 집행위는 "합병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등 유럽 지역 4개 중복 노선을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2차 심사에 들어가면 대한항공은 독과점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시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잠정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심사 초기부터 언급됐던 내용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경쟁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숲 가꾸기로 물 순환"…韓코카콜라, 지역사회와 친환경 협약 체결
여주시·K-water 등 6개 기관 협약
산림녹화·하천유역관리 등 지속 노력

한국 코카콜라가 17일 경기 여주시청에서 여주시, K-water 한강유역본부,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여주시산림조합과 함께 친환경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한 숲을 통한 물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6개 기관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코카콜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사용한 만큼의 물을 다시 자연에 환원하는 물 환원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한 물 안보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음료 생산 공장이 여주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협약을 통해 6개 기관은 여주 지역 숲을 대상으로 물 순환 강화와 탄소흡수 확대를 위한 산림녹화, 하천유역관리와 도랑살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한국 코카콜라는 숲 가꾸기를 통해 나무의 뿌리가 물을 저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잡초와 유해수종 등을 제거함으로써 수원 함양 기능을 높이고, 숲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또 나무 간의 적절한 거리 확보 및 정리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지역 내 지속가능한 물 순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간다.



이후정 여주시산림조합장, 박민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국장, 구남주 한국 코카콜라 상무, 이충우 여주시장, 오승환 K-Water 한강유역본부장,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국 코카콜라

구남주 한국 코카콜라 상무는 "물은 코카콜라의 비즈니스뿐 아니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향후 전문성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 이슈에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